

2023

09.21

CERIK 시장동향

2023년 9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 매매시장 2
- 임대차시장 5
- 공급 6
- 수요 9
- 금융 10
- 부동산산업 11
- 통계요약표 12

CERIK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

- 18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 종료(0.00%)
- 다만 특례보증자리론 및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종료가 예고돼 향후 주택 가격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 확인해야
- 8월에 전국 아파트 전세 및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모두 상승 전환

- ◎ **(종합)** 각종 가격 지표에서 나타나는 시장의 회복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BSI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지표 간 괴리 현상이 나타나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매매)** 8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포함세(0.00%), 지방 아파트 가격 0.04%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18개월 만에 수도권 하락세가 종료됨.
 - 가격 하락세가 다른 지수에 비해 두드러졌던 민간 가격지수인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조사'에서도 MoM 수도권 가격지수 변화율을 -0.008%로 집계하는 등 하락 추이가 멈추었다는 데 중의 모인 듯
 -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각각 0.02% 상승한 반면 경기 지역에서 0.04% 하락함으로써 수도권 전반의 가격이 포함세로 집계됨.
 - 지방에서는 0.04%의 하락이 이어졌고 그중에서도 기타지방의 낙폭이 0.01%에 불과해 내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 **(거래)** 5월에 최다치를 기록했던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2개월째 감소(전월 대비 각각 7.5%, 14.6% 감소)
 - 전월과 비교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고 지방에서도 울산(4.3%), 충북(0.4%)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일반적으로 여름철(7~8월)에는 날씨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시적인 감소세 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단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해당 명제가 적용되지 않았음).
- ◎ **(임대차)** 8월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 및 월세가격이 모두 상승 전환함(각각 0.24%, 0.06%).
 - 특히 전세의 경우 매매·월세에 비해 수요가 증가가 다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하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공급)** 지난해 1~7월 연누적 대비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누적된 주택 인허가 물량은 29.9% 감소
 - 9월 전국 분양은 2.4만 호로 집계됐지만 추석 연휴 등 9월에 분양할 수 있는 날짜가 적어 실제 분양 실적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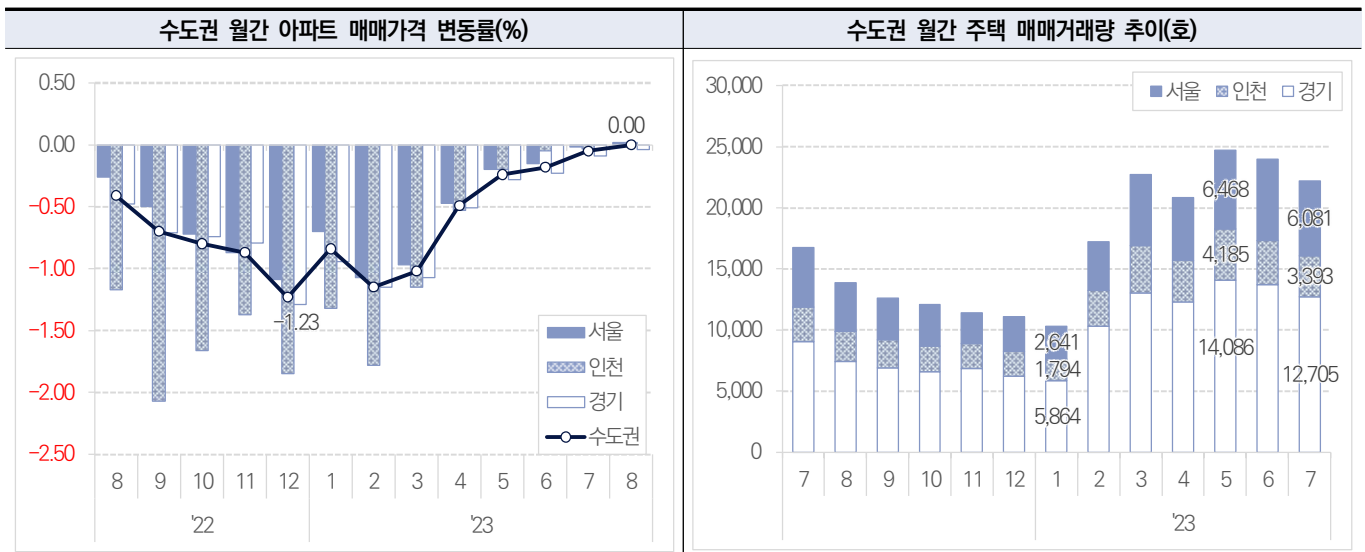
매매시장

1_수도권(서울·인천·경기)

- 8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보합(0.00%)을 기록. 지난달과 동일한 가격 수준 나타내...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벗어나
-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월에 비해 7.5% 감소해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던 5월에 비해 10.3% 감소

- ◎ (가격) 8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서울·인천 상승세나 경기 지역 하락세로 전월과 동일한 0.00%(보합) 기록
 -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하락폭이 감소해 9월 집계 결과에서 상승세로 나타날지 주목해야
 -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각각 0.02% 상승한 반면, 경기 지역에서 0.04% 하락해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0.00%의 보합세를 기록
 - 이로써 월간 아파트 가격지수를 발표하는 주요 3개 기관 중 KB국민은행만 유일하게 8월에도 수도권 하락세를 기록(KB국민은행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MoM 변화율은 -0.008%로 보합세에 가까워)
- * 한국부동산원 0.45%(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KB국민은행 -0.008%(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 본 고는 부동산114 조사 기준
- ◎ (거래) 7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2,179호로 지난달 MoM 3.0% 감소에 이어 7.5% 재차 감소
 - 지난달에는 서울의 거래량이 MoM 3.2% 증가해 전월 대비 활황을 보였으나, 이번 달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 * 전월 대비 거래량 변화 : 서울 -8.9% / 인천 -6.3% / 경기 -7.2%
 - 인천 지역의 6월 거래량은 MoM 13.5% 감소해 수도권 중 가장 감소폭이 컸지만, 7월 거래량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감소폭이 작았음.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매매시장

2_지방(지방광역시·8개 도)

- 8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3월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5개월 만에 0.77%p 줄어든 -0.04% 기록
-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울산과 충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하며 지방 전체로는 전월 대비 9.1% 감소

◎ (가격) 8월 지방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0.04%로 집계돼 당초 지난 7월 집계됐던 하락폭과 유사

- 지난달 기준으로 당초 집계됐던 7월 월간 하락폭은 0.05%로서 8월 들어 하락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거래사례가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0.11%로 증가
- 특히 8개 도를 포함하는 기타 지방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0.0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을 이어갈지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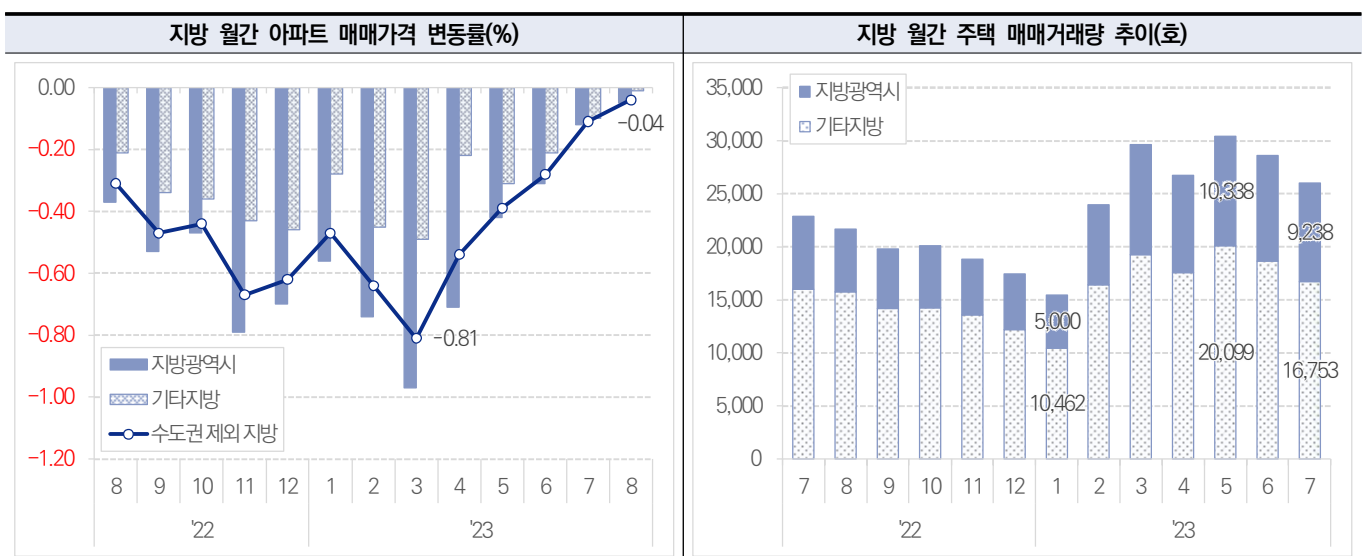
* 전월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 : 수도권 제외 지방 -0.04% / 지방광역시 -0.05% / 기타지방 -0.01%

- 수치상 시장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된 대구는 0.22% 하락해 지난달과 동일했고,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많다고 알려진 울산 지역은 대구에 이어 0.15% 하락

◎ (거래) 7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연중 최대치였던 5월에 비해 14.6% 감소한 2만 5,991호로 나타나

- 울산(월간 4.3% 증가), 충북(월간 0.4% 증가)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에서 모두 거래량이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가장 거래량 감소폭이 컸던 지역은 세종(월간 29.5% 감소)임.
- 그 외에도 전북(-25.9%), 제주(-16.4%), 전남(-11.5%) 등에서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됨.

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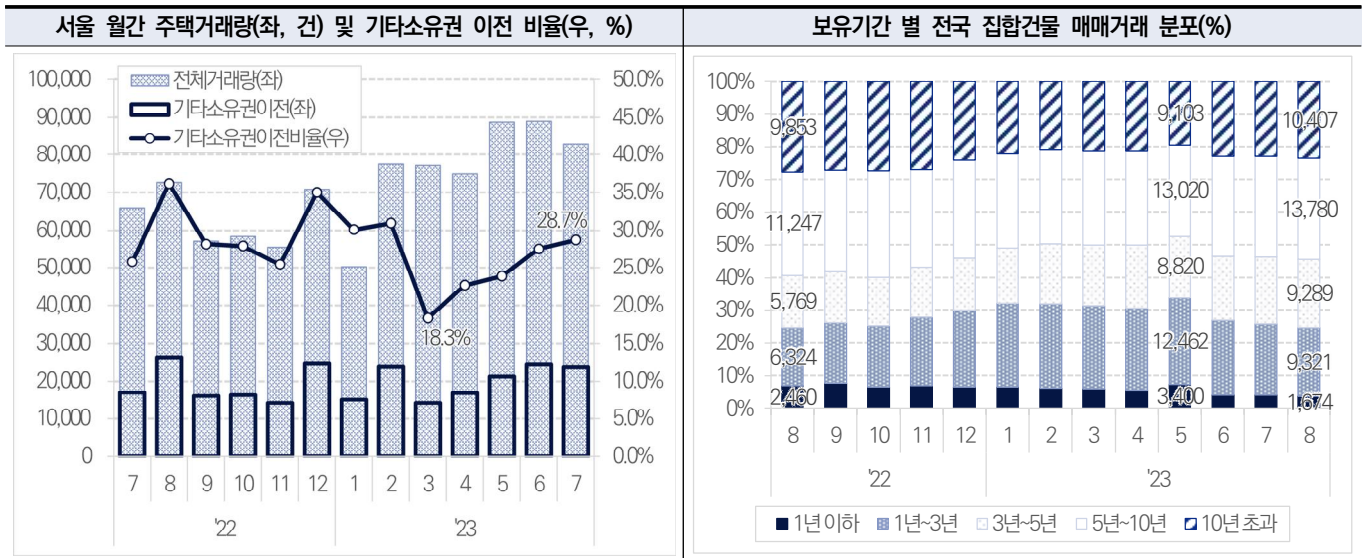
매매시장

3_거래속성

- 서울 주택거래량 소폭 감소했지만, 기타소유권 이전 비율은 이전 수준과 큰 차이 없어 전체 거래의 28.7% 기록
- 보유기간별 구성비는 지난 6월 이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특례보증자리론의 종료 이후 변화상을 확인할 필요 있어

- ◎ (거래유형) 기타소유권이전은 분양 물량 적었던 지난 2월을 거쳐 실제 계약행위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3월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증가세(18.3%^(2월) → 28.7%^(7월))
 - '기타소유권이전' 항목에는 최초 공급계약(시행·시공사와 맺는 분양계약) 및 분양권검인(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이 포함됨.
 - 2월 전국 분양 물량이 8,839호로 3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고 그 중 서울에서는 2월 분양 물량이 한 채도 없는 등 분양 경기가 올해 들어 가장 나빴던 시기로 이해할 수 있음.
 - 해당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한 기타소유권 이전 비율이 차츰 평년 수준¹⁾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구성비는 6월 이후 ±1%p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단 특례보증자리론의 판매 종료 및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종료가 예고돼 향후 변화에 귀추 주목

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



- ※ 주1 : '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로(동 기준; 경기도, 2020),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 ※ 주2 :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
-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법원 등기정보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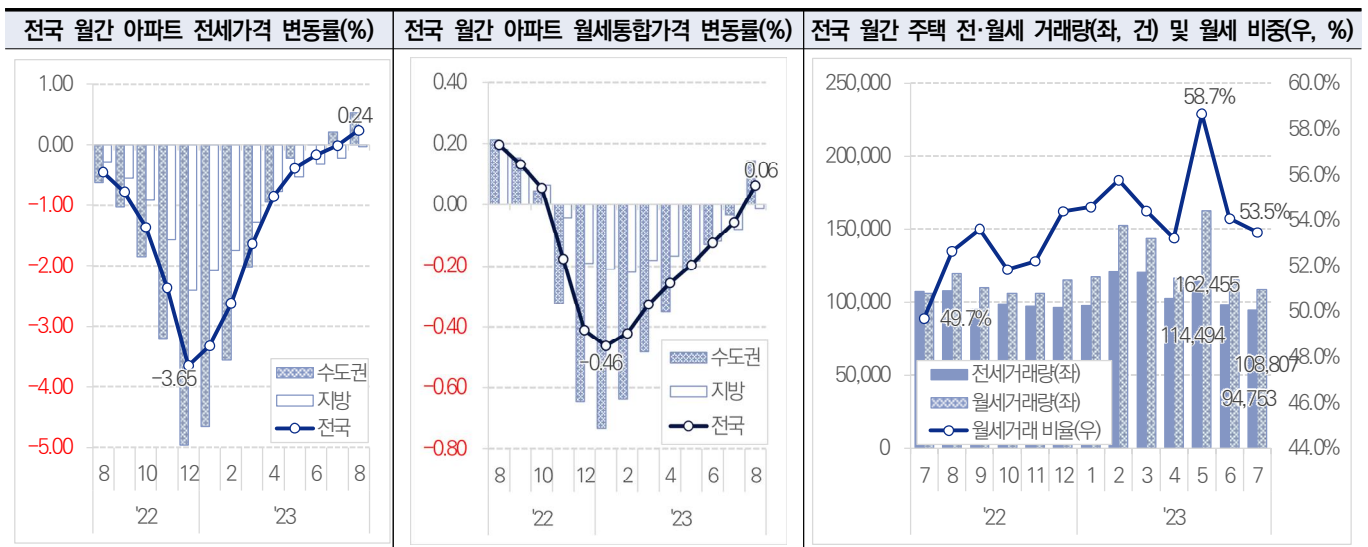
- 1) 이전 통계가 개편돼 '기타소유권이전' 명목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91개월 동안 전체 거래에서 기타소유권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28.7% 수준임.

임대차시장

- 8월 전국 아파트 전세 및 월세가 모두 상승 전환... 전세가는 19개월 만에 상승 전환해
- 7월 전국 주택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은 20만 3,560건으로 집계돼 상반기(1~6월) 평균 대비 16.4% 적어

- ◎ **(전세)** 8월 전국 전세가격은 0.24% 상승했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크게 영향을 미침.
 - 수도권 전세가는 지난달 0.22%에 이어 8월 0.53% 상승해 전국 전세가 상승폭을 키우는 데 일조함.
 - 다만 2년 전인 2021년 8월 전국 전세가격지수와 비교하면 수도권 전세가격은 여전히 1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전세가격 하락의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월세)**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²⁾도 10개월 만에 0.06% 상승했으나 수도권 제외 지방은 0.01%대 하락
 - 세부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도(0.17%)이며 제주도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전월 대비 0.09% 하락해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 **(거래량)** 7월 전국 주택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6% 감소했으며 전세와 월세 모두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함.
 - 특히 6월 이후 매매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전월세 거래량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유의가 필요함.

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 '월세통합가격(지수)'이란 월세, 준월세,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 이하 동일함.

공급

1_인허가

- 연간 누적 주택 인허가 감소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추세... 전년 대비 누적 29.9%(1~7월) 감소
- 1~7월 누적치를 기준으로 한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해에 비해 24.9% 감소한 17만 8,2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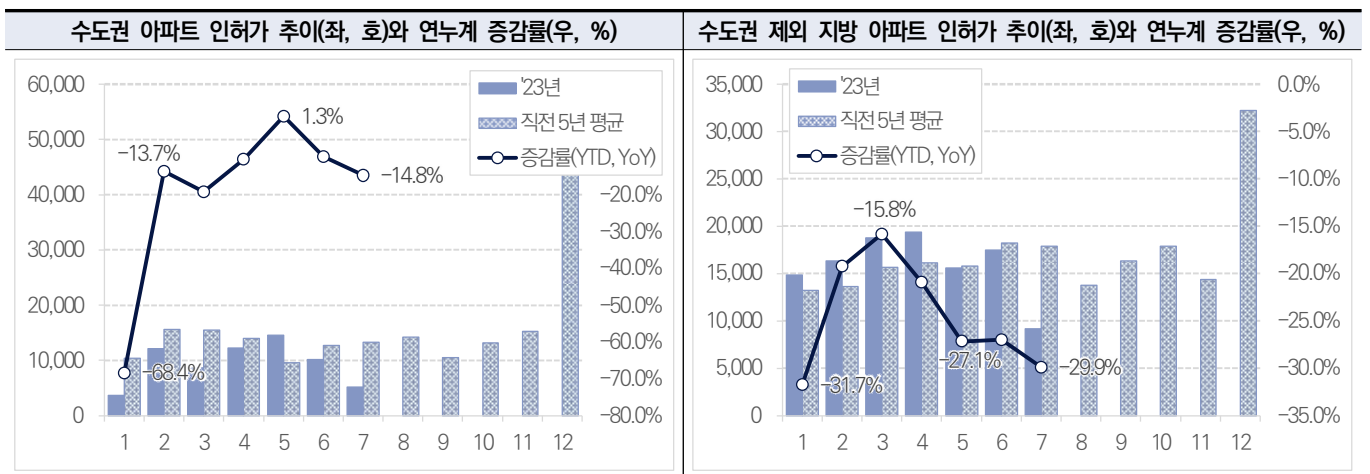
- ◎ (주택 전체) 7월 인허가는 1만 8,065호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50.0%)
 - 아파트의 경우 전년 누적 대비 증가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전국적으로 감소세 크며 특히 수도권에서 61.2% 감소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 ◎ (APT)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감소는 14.8%로 비교적 적었으나 기타 지방의 감소폭이 31.1%로 가장 커
 - 17.8만 호 수준으로 집계된 7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16.8만 호가 인허가 됐던 데 비하면 증가세나 당시 감소폭이 컸다는 점은 주지해야 함.

주택 인허가 현황(YTD)

인허가 현황 (호, %)	지역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2022년 1~7월	295,855	109,935	64,178	121,742	13,862	6,543	4,936	2,383	281,993	103,392	59,242	119,359
2023년 1~7월	207,278	78,889	45,334	83,055	8,850	6,134	1,855	861	198,428	72,755	43,479	82,194
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	-29.9%	-28.2%	-29.4%	-31.8%	-36.2%	-6.3%	-62.4%	-63.9%	-29.6%	-29.6%	-26.6%	-31.1%

※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인허가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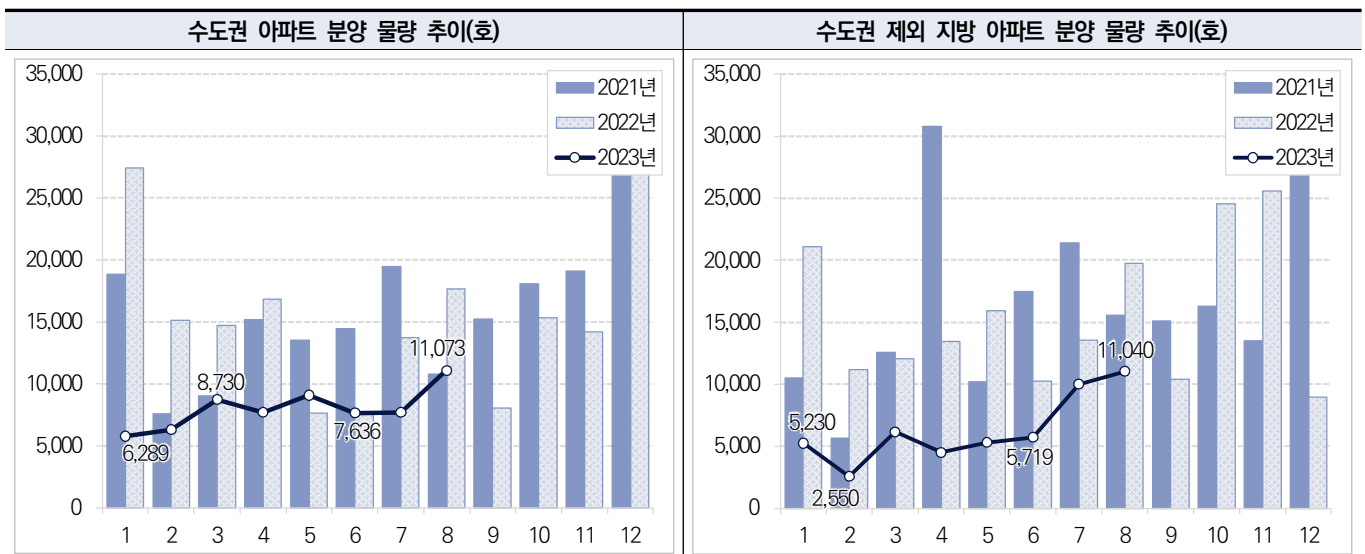
공급

2_분양

- 8월 전국 분양은 2만 2,113호로 집계돼 연중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기록함.
- 9월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약 2.4만 호로 조사돼 8월에 분양한 물량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응답함.

- ◎ **(수도권)** 8월 수도권 분양은 1만 1,073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44.0% 증가
 - 서울에서는 2023년 들어 최대 물량이 분양(4,680호)됐고 인천도 분양이 끊이지 않는 등 상반기 양호했던 수도권 지역의 분양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초에 비해 꾸준히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
 - 하지만 전년 누적 분양 물량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2022년 1~8월 누적 대비 47.0% 감소)
- ◎ **(지방)** 지방 분양도 넉 달 연속 증가해 8월 공급량 1만 1,040호로 전월 대비 10.3% 증가
 - 반면 지난해 같은 달까지 누적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올해 8월까지 누적 분양 물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57.0%)한 것으로 나타나
 - 전년 누적 대비 올해 누적 분양 물량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122.9%), 강원(10.0%), 부산(1.4%)임.
- ◎ **(분양계획)** 9월 전국 분양 예정은 약 2.4만 호로 집계돼 8월 분양 실적에 비해 소폭 증가세나 실적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짝음.
 - 당초 8월 분양 예정 물량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 금융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입주계획)** 연말까지(2023년 8~12월) 잔존한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9.1만 호로 집계됨.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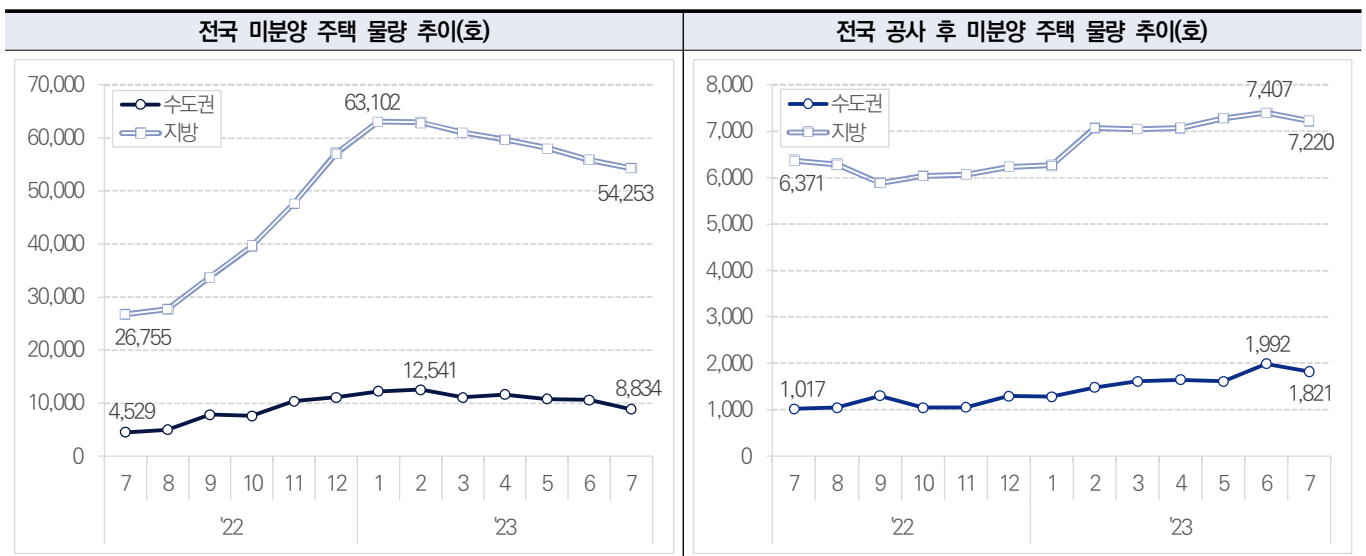
공급

3_미분양

- 7월 전국 미분양 감소폭은 5.0%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공사 후 미분양은 미분양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는 도중에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았으나 9개월 만에 첫 감소

- ◎ **(미분양)** 7월 들어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MoM 16.3%와 2.8% 감소해 전국적으로 MoM 5.0% 감소
 - 이로써 7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3,087호로 집계돼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위험선이었던 20년 장기 평균 6.2만 호에 근접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조회되는 7월 중 당첨자가 발표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대부분 단지가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남(2개 단지, 4개 세부 주택형에서 미달 발생).
 - 다만 현재 감소세는 상위 입지의 신규 분양 물량이 선별적으로 출회됨에 따라 월간 새로 추가되는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 시장 분위기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 **(공사 후 미분양)** 7월 전국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은 9,041호로 집계돼 MoM 3.8% 감소
 -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란 사용승인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집계한 것임.
 -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의 감소가 나타난 것은 지난 11월 0.5% 증가한 이래로 9개월 만임.
 - 과거 미분양 추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공사 후 미분양 주택 감소를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 연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요

- 수도권 매매 수급동향과 전세 수급동향 모두 90p대 상회하며 8개월째 상승
-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 107로 집계돼 가격 상승 전망 응답이 약 7%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

◎ (수급동향) 매매·전세·월세 등 전국 아파트 수급동향지수, 8개월째 꾸준히 상승 중

- 지난달에 비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매매·전세·월세 등 모든 지수가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수도권 매매 및 전세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하락해 수요 회복이 진행 중

* 전년 동월 비 아파트 수도권 수급동향지수 변화율 : 매매 7.4% / 전세 5.9% / 월세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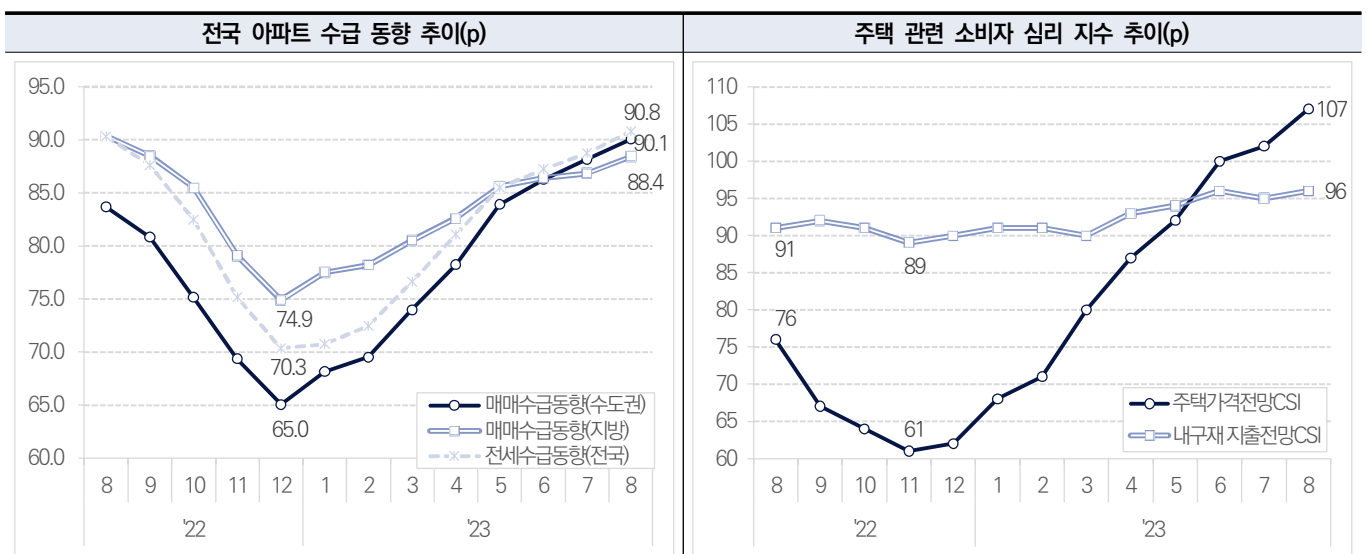
** 전년 동월 비 아파트 지방 수급동향지수 변화율 : 매매 -2.4% / 전세 -3.9% / 월세 -6.9%

- 전국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는 지난달보다 1.2% 상승한 94.1p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7.2% 하락해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1%, 0.5% 상승한 매매 및 전세 수급지수와 회복력에서 차이를 보임.
- 전년 동월 대비 매매 수급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용산·종로·중구를 포함한 도심권(YoY 18.6%)이며 그 뒤를 안성·용인·수원 등이 포함된 경기도 경부2권(YoY 18.0%)이 잇고 있음.
- 완화 기조였던 주택 금융 상품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향후 수급동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비자심리)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07p로서 지난달 102p에 이어 5p 재차 상승

- 가구, 가전 등 내구재 지출 전망은 1p 상승해 지난 7월과 동일한 96p 기록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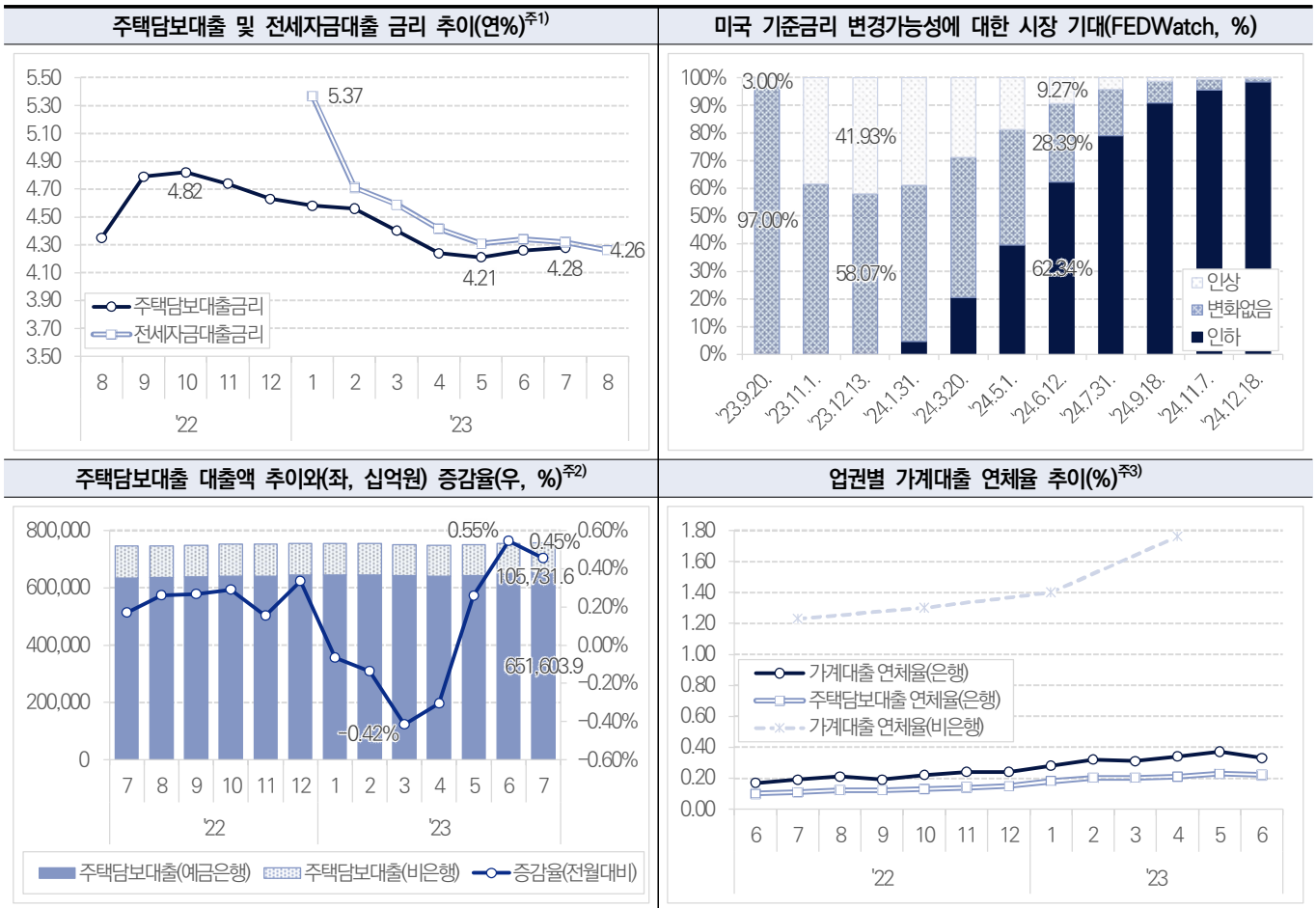
※ 주 :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금융

- (금리)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실행 기준)는 4.28%로 집계돼 MoM 0.02%p 인상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소폭 상승세인 이유는 은행의 대출 태도가 보다 완강하게 변화하면서 가산금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8월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실행 기준 평균 금리는 4.26%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0.02%p 저렴해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은 시장 상황에서 전세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기준금리 변경가능성)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2023년 말 한 차례 인상과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

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



※ 주1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임.
 ※ 주2 :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 주3 :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 임의로 분기 말(3·6·9·12월)에 입력하였음.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부동산산업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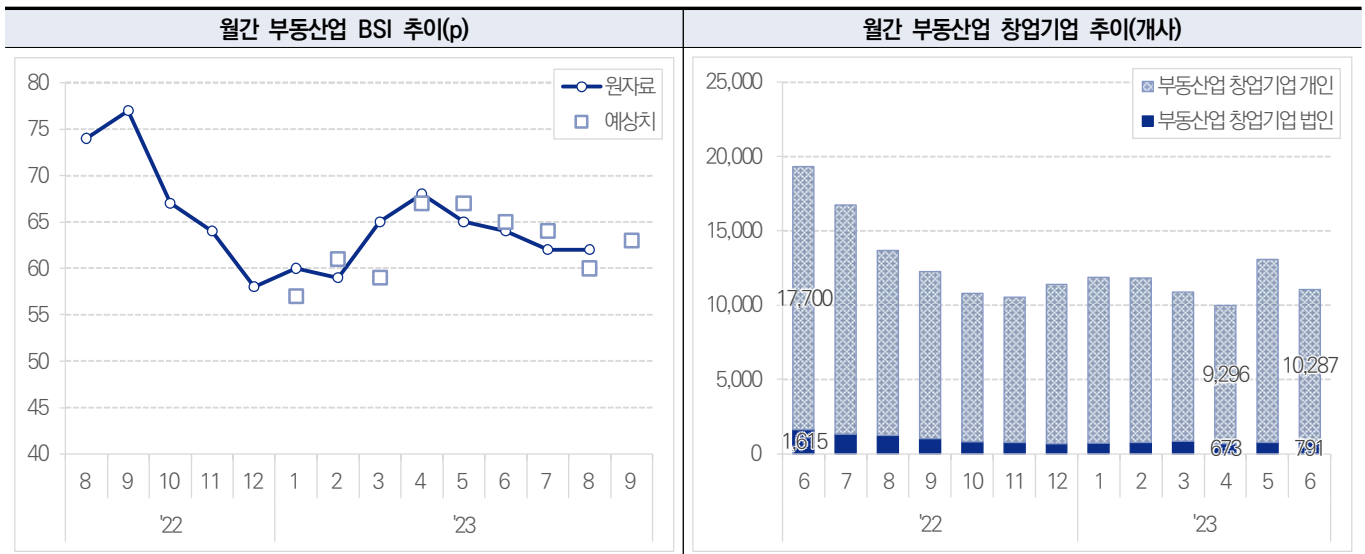
◎ (부동산업 BSI) 2023년 8월 부동산업의 업황 기준 BSI는 62p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

- 당초 7월에 예상했던 8월 BSI인 60p보다는 다소 상승한 62p를 기록했으며 9월 전망치는 8월 업황보다 1p 상승한 63p로 예상됨.
- 2019년 상반기 동안 이어졌던 가격 하락에 뒤이어 나타났던 상승장의 사례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9월이었고 BSI가 저점을 기록한 것은 2019년 8월로 동행 지표에 가까운 면모를 보임.
- 앞서 제시한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BSI의 하락세도 멈추면서 향후 시장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BSI도 완전한 상승세로 보기는 어려워 당분간 혼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 6월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약 1.1만 개로 5월에 비해 15.2% 감소

- 법인 창업기업 수는 지난달에 비해 3.9% 증가(6월 기준 791개사)했던 반면 개인 창업이 16.4% 감소해 법인과 개인의 창업 현황에 차별화가 발생
- 법인 창업기업이 MoM 소폭 증가했다는 점은 반대로 일선에서는 부동산 관련 기업금융 영업이나 프로젝트 심의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3) 본 고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L.부동산업(68)'으로 정의함.

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

항 목	변화율 · 변화량					최신 집계치 ^{주1)}	최근 5년 변화 추이		
	직전 5년		직전 3년		YoY			MoM	
	고점	고점대비	고점	고점대비	-			-	
	저점	저점대비	저점	저점대비					
거시경제	경기선행지수 (p)	111.1	0.0%	111.1	0.0%	2.0%	0.5%	111.1	
		94.4	17.7%	100.4	10.7%				
	소비자물가지수 (p)	112.3	0.0%	112.3	0.0%	3.4%	1.0%	112.3	
		98.9	13.6%	100.1	12.2%				
가격지수	수도권 아파트 매매 (p)	483.0	-8.3%	483.0	-8.3%	-7.3%	-0.0%	443.0	
		299.0	48.2%	379.4	16.8%				
	지방 아파트 매매 (p)	334.7	-6.3%	334.7	-6.3%	-5.3%	-0.0%	313.5	
		240.7	30.2%	267.8	17.0%				
거래량	수도권 주택 매매 (건)	75,725	-70.7%	63,203	-64.9%	32.5%	-7.5%	22,179	
		10,299	115.4%	10,299	115.4%				
	지방 주택 매매 (건)	77,078	-66.3%	77,078	-66.3%	13.7%	-9.1%	25,991	
		15,462	68.1%	15,462	68.1%				
공급	전국 아파트 분양 (호)	63,520	-65.2%	63,520	-65.2%	-41.4%	24.9%	22,113	
		7,039	214.1%	8,839	150.2%				
	전국 주택 미분양 (호)	75,438	-16.4%	75,438	-16.4%	101.7%	-5.0%	63,087	
		13,842	355.8%	13,842	355.8%				
금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	4.82	-0.54%p	4.82	-0.54%p	0.12%p	0.02%p	4.28	
		2.39	1.89%p	2.39	1.89%p				
	주택담보대출잔액 (십억 원)	757,335.5	0.0%	757,335.5	0.0%	1.7%	0.5%	757,335.5	
		592,145.6	27.9%	655,593.2	15.5%				

※ 주1 :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
 ※ 주2 :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부동산114

약어표(가나다 順)

용 어	내 용	비 고
BSI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CSI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MoM	전월 대비 변화율(Month-on-Month)	
YoY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Year-on-Year)	
YTD	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Year-to-Date)	